

전국최초 민간주도형 '안산시반려견순찰대' 발대식 개최

☞ 장병욱 기자 | ⌚ 승인 2023.06.11 14:28

심사 통한 31개팀, 5월 한달간 296건의 활동 성과
이민근 안산시장 "순찰대의 순기능 역할 기대"



안산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단체사진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대표 김지민)는 '2023년 안산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10일 오전 10시 신안산대학교 국제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발된 순찰대원 25팀과 가족들 100여명이 참여했다. 말티즈 같은 작은 소형견부터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까지 순찰대원의 면모도 다양했다.



나누리 봉사단 박보미 단장, 이민근 안산시장, (사)유기견없는 도시 김지민 대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순찰대원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2차 실습 심사 시에는 따라걷기(리드워킹), 보호자 명령어 이행 등 여부를 확인해 순찰대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선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사과정부터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순찰대원 임명식과 안산시 수의사회 조내환 회장의 건강세미나가 운영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축사를 하는 모습 / 송바우나 안산시의회의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김석훈 국민의힘 상록을 당협위원장 축사를 하는 모습 / 안산시수의사회 조내환 회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유기견 없는 도시 김지민 대표가 인사말을하고있다 / 신안산대 지의상 총장의 축사 모습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장, 김석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안산대 지의상 총장, 경기매일신문 우정자 회장, 나누리봉사단 박보미 단장, 안산시수의사회 조내환 회장, 담덕치과 김대운 원장, 중앙내과 김경리 원장, 신안산대 윤소라 동물보건과 교수, (사)유기견없는도시 광명지회 송성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왼쪽 상단 좌측부터 경기매일신문 우정자 회장, 신안산대 동물보건과 윤소라 교수,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대 지의상 총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김석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앞서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발족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산시가 최초이다.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민 (사)유기견없는도시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적 반려견 순찰대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장윤정 도의원, 김석훈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이민근 안산시장, (사)유기견 없는도시 김지민 대표, 신안산대 지의상 총장, 안산수의사회 조내한 회장, 담덕치과 김대운 원장, 중앙내과 김경리 원장

이민근 안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최초 민간주도형 안산반려견순찰대의 앞으로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존에 대해 순찰대원들이 모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사)유기견없는도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주도형 안산시반려견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산시중앙내과 김경리 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앙내과 김경리 원장, 이민근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담덕치과 김대운 원장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며 거주지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지역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기여한다.



이민군 안산시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과 순찰대원들.

단체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해 선발된 안산시 순찰대원 31명은 지역순찰을 시작하고 있으며, 5월 한달간 112신고 2건, 120신고 54건, 일반 순찰 240건등 296건의 활동 성과를 보였다.



순찰대원들은 생활 속 범죄 위험 요소나 위급한 상황, 시설물 파손, 생활 불편사항 등을 발견해 안산시청 당직실(☎031-481-2222)이나 시청 반려동물팀(☎031-481-2159)에 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경제TV MC 심재욱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했다.

